



# 중국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홍 석 재 (해외건설협회 지역1실 연구원)

## 1. 경제동향 및 전망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시장개방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구미국가들의 생산, 유통, 판매 거점지역으로 이미 세계 500대 기업의 대다수가 진출한 상태이다. 특히 미국은 중미 수교 이후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상태이며, 한국, 일본, 유럽 등 국가들도 이 뒤를 따랐다.

미국의 금융투자업체는 2000년대 중반 주택담보 대출, 금융파생상품 등을 바탕으로 대단위 자금력을 모집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석유, 가스, 부동산, 광물자원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5년 기준 8,189억불로 1조불에도 못 미쳤지만,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화교자본이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 및 싱가포르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2억불을 크게 상회하며 세계 최고치를 갱신한 상태이다. <<표-1>>

구미국가는 2008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해외투자 위축, 실질구매력 감소, 실업자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보호무역 강화 등 난제를 떠안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으로 구성된 유로존의 PIGS 국가들은 최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도입하면서 개인소득 감소,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하반기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1~2위 수출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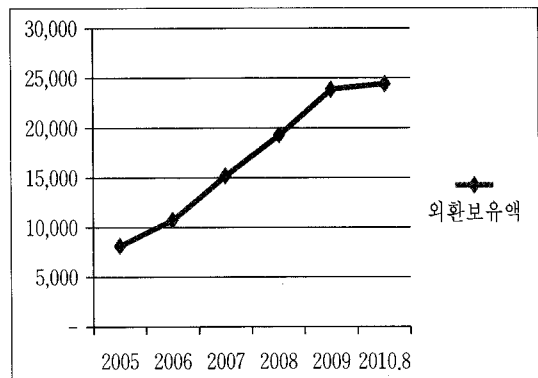
서 현재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표-2>>

이와 더불어, PPI(생산자 물가 지수)는 2009년 말부터 급등하여 현재 CPI(소비자 물가 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I의 급격한 상승은 조만간 CPI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대로 라면, 중국은 수출둔화와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초 추진한 경기연착륙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금년에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에 대처하기 위해 4조위안(5,86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China Knowledge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2009년 5월 기준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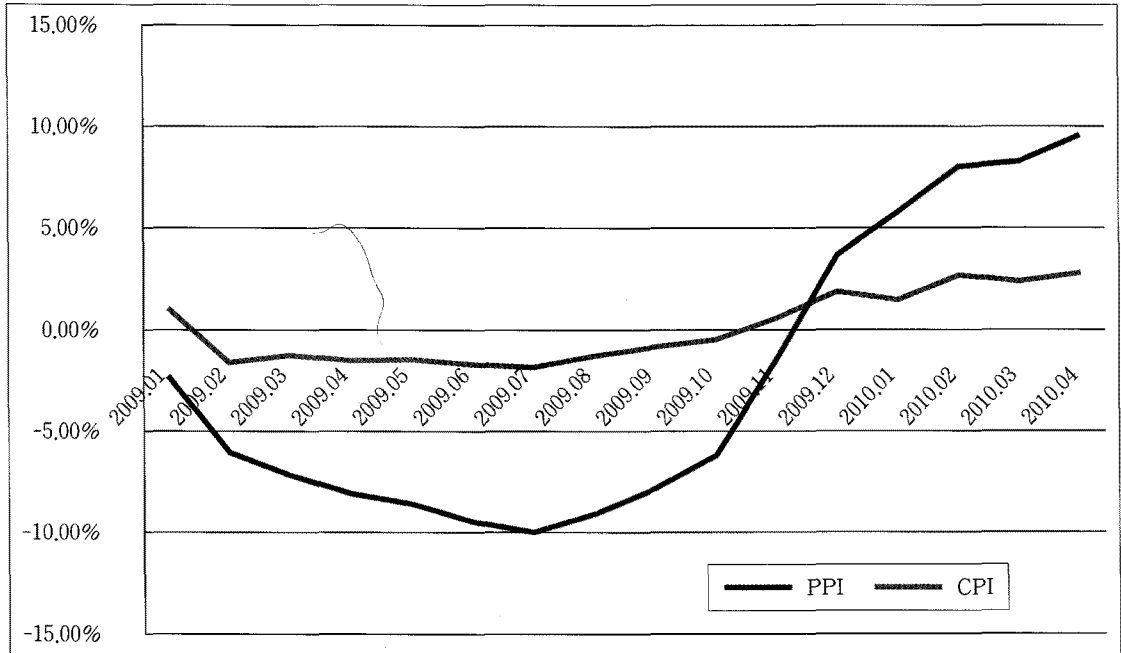
<표-1>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불)



자료 : 중국은행, 한국은행

〈표-2〉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억불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이미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 도로, 공항,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전체의 45%인 1조 8천억위안이 투자되며, 재해 복구사업 1조위안(25%), 농촌 개발사업 3,700억위안(9%), 생태 및 환경 사업 3,500억위안(9%), 서민주택 사업 2,800억위안(7%), 혁신사업 1,600억위안(4%), 보건, 문화, 교육 사업에 400억위안(1%)이 투자될 예정이다.〈표-3〉

이 같은 경기부양책은 전체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건설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건설 및 건설재 산업 관련 국영기업의 유동성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실업을 해소, 민생 안정 등 파생효과도 기대된다.〈표-4〉

세계 경기가 상반기에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앙 관제부처와 지방당국은 경기부양 투자 우선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여 투자유치와 민생안정 유지에

주력하였다. 건설산업은 금년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155억 불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인력도 전체 노동력의 10%를 상회하는 8,360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성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

〈표-3〉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세부내역  
(단위 : 억위안)

투자 부문	금 액	점유율 (%)
철도, 도로, 공항, 전력망 건설사업	18,000	45
재해 복구사업	10,000	25
농촌 개발사업	3,700	9
생태 및 환경 사업	3,500	9
서민주택 사업	2,800	7
혁신 사업(브랜드 개발, 구조조정)	1,600	4
보건, 문화, 교육 사업	400	1
합 계	40,000	100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5)

〈표-4〉 주요 경제 및 건설산업 지표 추이

구분	단위	2007	2008e	2009e	2010f	2011f	2012f	2013f
명목 GDP	10억불	3,384.6	4,328.8	4,781.9	5,442.5	6,252.8	7,216.7	8,161.7
건설산업	10억불	178.7	224.6	265.5	315.5	359.6	413.4	458.0
점유율	%	5.3	5.2	5.6	5.8	5.8	5.8	6.0
실질 GDP 성장률	%	13.0	9.0	8.4	8.8	7.5	8.6	7.6
건설산업	%	9.8	9.0	16.1	14.0	6.8	8.3	6.0
1인당 GDP	1불	2,533.0	3,214.0	3,523.0	3,978.0	4,535.0	5,193.0	5,828.0
건설인 평균 임금	1불	2,388.3	2,923.3	3,144.7	3,474.4	3,921.9	4,403.3	4,887.8
인구	백만	1,336.1	1,346.8	1,357.5	1,368.2	1,378.9	1,389.6	1,400.3
노동력	백만	774.6	782.3	790.0	797.9	805.8	813.7	821.8
건설인력	백만	64.7	69.8	77.0	83.6	88.8	95.5	100.4
점유율	%	8.4	8.9	9.7	10.5	11.0	11.7	12.2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5)

양책에 힘입은 것으로 2011년부터는 둔화될 전망이다.

## 2. 인프라 시장 동향 및 전망

### 가. 교통 인프라 부문

인프라 부문은 경기부양책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2009~2010년간 건설산업 성장률을 15% 내외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인프라 수요는 일본과 같은 성숙기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풍부하지만 최근 수년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향후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는 향후 수년간 전체 인프라 산업의 약 60%를 점유할 전망이다. (〈표-5〉)

#### (1) 도로 및 교량

도로 및 교량 부문은 지난 2007년 23.8% 성장한 이후 성장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에 총연장 1,200만km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보수할 예정이며, 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연장 300만km의 고

속도로망을 건설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모두 연결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망은 2020년 완공 시 연간 365억명의 여객과 200억톤의 화물을 수송하게 된다.

#### (2) 철도

철도 부문은 경기부양책의 핵심사업으로 향후 수년간 전체 인프라 산업의 40%를 점유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전국 균형발전, 내륙 지하자원 및 관광 자원 개발,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철도 부문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도로 및 항만 부문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China Railway Group,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등 철도 관련 국영업체의 재무구조와 사업 실적을 개선하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인프라 시장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 226,000km, 러시아 87,000km에 이어 전 세계의 약 5.5%인 총연장 75,500km의 철도를 보유한 세계 3대 철도 보유국이지만, 인구 대비로는 아시아에서 최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철도 부문에 361억불을 투자한

〈표-5〉 교통 인프라 부문별 지표 추이

공 종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e	2010f	2011f	2012f	2013f
도로 교량	규 모	10억	11.3	14.1	17.6	20.9	23.8	27.4	30.4
	실질 성장률	%	11.7	7.6	22.5	14.1	6.7	8.4	5.6
	인프라 비중	%	23.8	16.5	13.6	12.4	11.9	11.4	11.1
	건설산업 비중	%	6.3	6.3	6.6	6.6	6.6	6.6	6.6
철도	규 모	10억	9.7	23.8	46.3	64.1	78.4	96.3	111.1
	실질 성장률	%	76.4	119.1	91.0	33.3	14.7	15.9	10.0
	인프라 비중	%	20.4	27.9	35.8	38.1	39.1	40.0	40.6
	건설산업 비중	%	5.4	10.6	17.4	20.3	21.8	23.3	24.3
공항	규 모	10억	0.1	0.2	0.2	0.2	0.3	0.3	0.3
	실질 성장률	%	-33.1	56.5	17.2	9.8	4.8	6.2	4.2
	인프라 비중	%	0.2	0.2	0.2	0.1	0.1	0.1	0.1
	건설산업 비중	%	0.1	0.1	0.1	0.1	0.1	0.1	0.1
항만 수로	규 모	10억	11.3	10.0	12.5	15.0	17.2	20.0	22.1
	실질 성장률	%	75.8	-25.0	23.0	15.3	7.4	8.9	5.9
	인프라 비중	%	23.7	11.7	9.6	8.9	8.6	8.3	8.1
	건설산업 비중	%	6.3	4.4	4.7	4.8	4.8	4.8	4.8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5)

가운데 향후 3년간 총 2,922억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철도는 경기부양책이 추진되는 2009~2012년 기간에 86,000km에서 28% 늘어난 총연장 110,000km로 확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연 평균 600억불씩 총 7,300억불을 투자하여 총연장 41,000 km의 여객 및 화물철도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북경, 천진, 상해, 광주, 무한, 심천, 남경, 중경 등 8개 대도시가 지하철을 보유한 가운데 7개 이상의 도시가 총 650억불을 투자하여 연장 2,000km의 지하철을 부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0년 기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25개로 추정되고 있어 지하철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3) 공항

공항 부분은 2008년 올림픽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56.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 정

부는 2008년 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9~2010년 기간에 총 585억불을 투자하여 공항 50개를 건설하고 90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금년에도 감속성, 운남성, 사천성, 저장자치구, 청해성 등의 내륙지역에 공항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산업 육성, 민생안정,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은 2007년 기준 약 500개 공항을 보유한 가운데 오는 2020년까지 총 97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4) 항만 및 수로

항만 및 수로 부분은 금년에도 동부지역의 기존 항만 확장공사와 양자강 유역 거점도시를 연계한 국제 물류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총 처리능력 29억톤 규모의 항만 2,000개 이상과 총연장 14만km의 수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300개 항만은 외국선박의 입항이 가능하며, 16개 주요 항만은 연간 5,000만톤의 화물 처리능력을 갖

〈표-6〉 에너지 인프라 부문별 지표 추이

공 종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e	2010f	2011f	2012f	2013f
전력 배전망	규 모	10억	12.8	31.0	44.1	56.8	67.3	80.4	91.3
	실질 성장률	%	-34.4	115.7	39.8	23.9	11.2	12.6	8.1
	인프라 비중	%	26.8	36.3	34.0	33.7	33.6	33.4	33.4
	건설산업 비중	%	7.2	13.8	16.6	18.0	18.7	19.5	19.9
석유 가스 파이프 라인	규 모	10억	2.1	5.3	7.3	9.3	10.9	12.9	14.6
	실질 성장률	%	24.1	125.7	35.2	22.0	10.4	11.9	7.7
	인프라 비중	%	4.4	6.2	5.6	5.5	5.4	5.4	5.3
	건설산업 비중	%	1.2	2.4	2.8	2.9	3.0	3.1	3.2
수처리	규 모	10억	0.4	1.0	1.6	2.2	2.7	3.3	3.8
	실질 성장률	%	-33.1	167.0	54.4	30.7	13.8	15.0	9.5
	인프라 비중	%	0.7	1.2	1.3	1.3	1.4	1.4	1.4
	건설산업 비중	%	0.2	0.5	0.6	0.7	0.8	0.8	0.8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10.5)

추고 있다.

## 나. 에너지 인프라 부문

에너지 인프라는 오는 2013년에 전체 인프라 산업의 40%를 점유할 전망이다. 전력 및 배전망 부문은 2009년 약 40% 급성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약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문은 향후 대규모 원자력발전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성장 가능성이 비교적 풍부하다.〈표-6〉)

### (1) 전력 및 배전망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석탄 의존도는 현재 전체 에너지의 70%에서 오는 2012년 64%로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8기를 건설하기로 승인하였으며, China Nuclear Engineering Group은 원자로 1기의 용량과 건설비용을 각각 1GW, 21억불로 추정하였다. 원자력 발전량은 2006~2012년간 140% 성장하겠지만, 화력

발전량은 동 기간에 단지 76%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원자력 소비량은 2007~2018년 동안 연간 11%씩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우라늄의 40%를 보유한 호주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라늄 고갈에 대비한 비축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전력부문에 중국은 캐나다에 이은 세계 2위 수력발전 국가로 현재 479TWh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체 전력의 20%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세계 최대 규모인 삼협댐을 본격 가동하면서 2010년 세계 제1위 수력발전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가에너지청은 2011년까지 내몽고자치구, 신강 위구르자치구,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산서성 등 서북부 내륙지역에 총 2GW 규모의 태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는 중국의 3대 석유가스업체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World of Renewables 보고서에 따르면, CNOOC는 2009~2010년

기간에 세계 1위 풍력터빈 생산업체인 Vestas(덴마크)를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20GW 규모의 태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 (2)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은 금년 22.0%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지역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수급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중동, 아프리카 시장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수급이 용이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유력 파이프라인 건설업체인 Petro China는 향후 러시아산 원유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 5년간 124억불을 투자하여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다.

ESPO(Eastern Siberia-Pacific Ocean)는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4,700km의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로 현재 Transneft와 CNPC가 2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 (3) 수처리

수처리 부문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금년 30.7% 성장할 전망이다. 이 부문은 현재 Veolia Water(프랑스)가 진출하여 큰 사업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 업체의 투자 및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 3.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용공여로 주택, 오피스, 상업 등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외국인 직접 및 간접투자 증가 등을 불러와, 그동안 시장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동산 수요는 동부지역 및 내륙 거점도시의 도시화를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가구수입 증대,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기업 및 개인의 부동산 투자,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당국의 토지 공매 등으로 증가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최근 상해, 북경, 광주, 심천 등 1급 도시에서 귀양, 천진, 중경, 항주 등 2급, 3급 도시로 사업 부지를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부동산은 지난 5월 연면적, 낙찰 단가, 전체 낙찰가 등 3개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3개 부지중 한 곳만이 1급 도시인 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부지는 2급 및 3급 도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vergrand Real Estate Group, Country Garden Holdings Company 등 유력 부동산 개발업체는 현재 2급, 3급, 4급 등 도시에서 상당수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호전세를 시현하고 있다. 상해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Topsur는 최근 2급 및 3급 도시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금년 부동산 업체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물량 증가, 비정상적 가격상승 등 요인으로 하락세가 전망된다. 유력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DTZ에 따르면, 1급 도시와 2급도시의 7월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5.8%, 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DTZ는 향후 수개월간 신규 공동주택 증가로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경의 주택 가격은 올 하반기에 공실률 감소로 10% 하락에 그치고, 상해는 외곽 주택이 가격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15% 하락할 전망이다. 아울러 광주, 심천의 주택 평균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도시별 현황을 보면, 수도 북경은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동산가격을 약 30%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인하보다는 부동산 보유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는 북경 올림픽 폐막이후 아파트 가격을 평균 15~20% 인하하기도 했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북경시 토지자원국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급을 줄이고 있는 추세로 부지공급을 2008년 65km<sup>2</sup>에서 2009년 63km<sup>2</sup>로 제한한 바 있다.

금융 허브 도시인 상해는 다수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시공되고 있어, 공실률 증가가 예상된다. 상업용 부동산은 지난 2년간 공급증가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공실률이 24%에서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시공중인 IFC 건물은 향후 임대료 상승의 주역이 될 전망이며, Shanghai Business Park도 금년 180만㎡의 오피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복성의 성도인 무한의 경우, 오피스 공간은 약 15만㎡에 이며, 10~15%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상업용 부동산도 2만km<sup>2</sup>의 공실면적을 기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료는 금년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2년간 소폭 성장한 가운데 금년에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북경, 상해를 포함한 주요 지방당국은 제3주택 구매에 대한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은행권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21% 줄어든 총 426억불 규모의 대출허가를 받은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7월 개인 주택대출도 전월 대비 25.3% 하락한 약 87억불을 기록하였다. DTZ는 조만간 주요 신규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Knight Frank도 기존 규제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소폭 조정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토지분양 및 부동산개발 세수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정책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 4. 건자재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수백만 일자리와 건자재 수요를 창출하며 국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철도 부문만 작년 2,000만톤의 철강과 1억 2,000만톤의 시멘트 수요를 창출하였다. 이는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 181개와 삼협댐 11개를 건설하기

에 충분한 물량이다. 인프라 개발은 국내 시멘트 수요의 30%, 철강 수요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건자재 수요가 지난 수년간 부동산 활황세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에 힘입어 최고치를 갱신하며 큰 폭으로 신장하였지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유력 시멘트 정보업체인 Digital Cement는 현재 시멘트산업의 황금기가 도래하였지만, 동부 연안지역 건설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고 있어 과잉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시멘트업체인 Holcim과 중국 유력 시멘트업체인 Huaxin Cement의 겸임 부사장인 Ian Riley는 1인당 시멘트 누적 소비량이 이미 최고치인 20톤을 상회하고 있어, 동부 연안지역을 포함한 국내 건설시장이 현재 수요를 유지하기 어려울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철강 생산량은 작년 중국이 전년 대비 13.5% 늘어난 5억 6,780만톤을 생산한 가운데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은 그 동안 잉여분을 해외수출로 해결하였지만, 최근 세계 경기침체와 경기회복 둔화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동유럽,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자체 철강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 해외수출시 운송비가 가중되는 중국은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대외적인 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M&A를 통한 글로벌 선두기업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철강, 시멘트 등 고위험물 배출 공장 2,087곳을 폐쇄하도록 지시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오는 9월 말까지 철강, 코크스, 알루미늄, 종이 등 관련 노후 생산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사실 5개년 계획은 금년 건설경기 회복이 철강, 시멘트 등 건자재 수요 증대를

〈표-7〉 주요 산업 구조조정 추진안

산 업	기 한	퇴출 대상
석탄	2010년 말	총 2억톤 규모의 탄광 8,000곳
코크스	2010년 말	높이 4.3m 이하의 건류실
합금철	2010년 말	6,300kVA 이하의 전호로
탄화칼슘	2010년 말	6,300kVA 이하의 전호로
철강	2011년 말	400m <sup>2</sup> 이하 제철 용광로, 30톤 이하의 제강전로 및 전기로
유색금속	2011년 말	100kVA 이하의 전기분해 알루미늄 건조탱크
건재	2012년 말	3.0m 이하의 시멘트 분쇄기

자료 : 국무원

불러오며 차질을 빚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금년 말까지 에너지원 단위를 20% 줄여야 한다. 에너지원단위는 작년 14.4% 줄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약 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미국보다 많지 않았지만, 거대 인구로 작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하였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는 걸프산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구 과밀 국가의 부족한 수자원과 수목림에 대한 오염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표-7〉

특히 시멘트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는 최근 오염물 배출 및 에너지 과소비 생산 공장 762개를 지정, 9월 말까지 폐쇄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대상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연간 시멘트 생산능력이 약 1억톤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이 조치에 불응하는 업체에게 대출제한, 신규투자 승인제한 및 토지 취득제한, 생산면허 및 오염물 배출 허가 몰수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Guotal Junan Securities는 이 조치로 청해성, 산서성, 북경 등의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Everbright Securities는 시멘트 생산 성장률이 현재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시멘트 생산량은 2009년에 16억 3,000만톤을 기록한 가운데 금년 고성장 자산 투자와 부동산 시장 둔화 등 악재와 홍수 복구사업 추진 등 호재가 혼재되어 18억 5,00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노후설비 퇴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형 시멘트 생산업체는 M&A 수혜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형 시멘트 생산업체는 최근 아프리카 시멘트 시장도 본격 진출하고 있어 대내외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시멘트협회는 최근 노후 생산설비 폐쇄, M&A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시멘트산업 신개발 정책이 10개 부처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일자리 및 세수 보존을 목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